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영국, 생명사 자산건전성 시뮬레이션 테스트 착수

- 영국의 금융감독청(FSA)은 가상의 경제 충격에 대한 생보사의 자산건전성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지시함.
 - FSA는 주식시장의 40% 추가 하락, 회사채 디폴트 추가 증가, 금리하락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시함.
 - 이미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재무건전성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시행된 바 있으며, 경제상황의 악화 지속으로 생보사의 재무건전성도 우려 대상이 된 것이 금번 시뮬레이션의 배경임.
-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동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FSA의 자본 확충 요구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업계 일단은 동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리히터 측정 규모 7에 해당하는 지진이 런던시에 일주일 내에 5차례 발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,
 - 이와 같은 단편적인 테스트 결과가 해당 보험사 주식가격과 유럽 각국의 보험사와의 경쟁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.
 - 몇몇 보험사는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며, 시뮬레이션 결과와 연말의 재무제표 발표가 자본확충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냄.
- FSA는 금번의 시뮬레이션은 정보수집 차원일 뿐이며 생보산업 내에서의 자산건전성 비교를 목표로 할 뿐이라고 밝힘.
- 그러나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던 FSA가 생보산업의 자본확충에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사용한다면, 이는 자신의 기존 정책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논평함.
 - FSA는 그동안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, 기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임을 표명한바 있음.

- 또한 FSA는 2000~2003년의 금융시장 하락기간 중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매각했던 사례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 12/15)